

##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메타분석

이현정\* · 손수경\*\* · 장유나\*\*\* · 홍세희\*\*\*\*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를 종합함에 있어 완벽주의의 하위 요소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다변량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특성 변인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습자일수록 학업지연행동의 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타인의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학업지연행동의 경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한 타인에게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하고 타인의 수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간 효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특성 변인(표본 수, 출판유형, 연구대상,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이 효과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표본 수가 커질수록 부적인 효과크기가 완화되었고, 출판유형이 학술지인 경우,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가 Aitken의 검사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가 강화되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출판유형이 학술지인 경우 부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연구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가 완화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표본 수가 커질수록 정적인 효과크기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변량 메타분석 방법론에서 더 나아가 다변량 메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효과크기를 종합하였으며, 자료를 연구특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연구간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특성 변인을 메타회귀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상담과 교육적 개입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다변량 메타분석, 다차원적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 효과크기, 메타회귀

\* 한양대학교 책임연구원

\*\* 국민대학교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eehong@korea.ac.kr](mailto:seehong@korea.ac.kr)

## I. 서 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적절한 수준의 경쟁은 학습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하지만, 현재의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불안, 우울, 불행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손창숙, 이주미, 이명숙, 2015). 이러한 교육환경은 학습자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며,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완벽주의는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 하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과도하게 비난하는 성향을 말하는데(Flett & Hewitt, 2002; Frost, Lahart & Rosenblate, 1990), 교육학 및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의 기능과 완벽주의가 미치는 효과 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완벽주의의 초기 연구는 부적응적 속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urns, 1980; Ellis, 1958; Hamachek, 1978; Hollender, 1965).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심하게 비난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강한 동기,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고수하려는 태도, 강박적인 목표 추구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강박감이나 스트레스, 위기의식, 우울, 불안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Alden, Bieling & Wallace, 1994; 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는 완벽주의가 적응적으로 기능하면 학습자의 성취동기를 증가시키고 자긍심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속성을 가진 단일차원으로 정의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Burns, 1980; Ellis, 1958; Hollender, 1965), 긍정적 기능도 포함하여 다차원적 요인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

완벽주의는 우울이나 강박, 불안 등의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O'Connor, O'Connor & Marshall, 2007; Pacht, 1984), 수행과 연관되어 나타나므로(Blatt, Quinlan, Pilkonis & Shea, 1995), 학습을 이루는 지연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다(임성문, 강미정, 2006; Burka & Yuen,

1983; Burns, 1980; Ellis & Knaus, 1977; Pacht, 1984). 학업지연행동은 학업을 단순히 미루는 것 이상의 부정적 행동 및 정서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습관적으로 학업을 지연시키는 행동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과도하게 미룸으로써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Strunk et al., 2013).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학습 일정을 자주 미루기 때문에 학습수행의 질이 낮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자기 비난이 반복되고, 불안이나 좌절을 쉽게 경험하는 등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Schouwenburg et al., 2004; Steel & Klingsieck, 2016). 학업지연행동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Klingsieck, 2013), 우리나라 초기청소년을 비롯한 대학생 학습자의 상당수가 빈번히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서은희, 김은경, 2012; 함경애 외, 2011). 따라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에 맞는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로 학업지연행동을 중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완벽주의는 그 속성에 따라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혹은 부적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완벽주의의 속성을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자가지향적 완벽주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과 부적 관계가 보고되고 있지만(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이수민, 양난미, 2011; 한영숙, 2011; Busko, 1998; Frost et al., 1990; Saddler, & Buley, 1999), 일부의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Saddler & Sacks, 1993). 그러므로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통합된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종합하는 메타분석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김경령과 서은희(2017)는 26개 연구에 대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종합하고, 완벽주의의 하위 차원별(자가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의 측정도구별, 국내외별, 학교급별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전경남과 이정

민(2018)은 34편의 연구에 대해 완벽주의를 두 가지 유형(긍정적 성취추구, 부적응적 평가염려)으로 구분하고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를 종합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완벽주의를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보고 연구들을 종합하였으나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효과크기를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김정령, 서은희(2017)와 Steel (2007)은 Hewitt과 Flett(1991)이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의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에 서로 연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을 고려하지 않고 각기 개별적으로 효과크기를 종합하였다. 그러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 문제들은 다변량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방법론 연구자들은 다변량 효과크기를 효과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연구해왔다(Becker, 1992, 2000, 2009; Berrington & Cox, 2002; Cheung, 2013; Cheung & Chan, 2009; Kalaian & Raudenbush, 1996; Raudenbush, Becker & Kalaian, 1988). 다변량 변인의 속성을 가진 자료를 각각 별도의 효과크기로 산출하는 방법은 분석이 쉽고 그럴듯해 보이나, 효과크기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동일한 연구 내 2개 이상의 효과크기 간 상관을 무시할 경우 전체적인 분산의 추정에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iley et al., 2007). 이에 대해 Cheung은 다변량 메타분석은 효과크기들 간의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borrow strength”, Cheung, 2013, p. 430) 각각을 단변량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상관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모형 안에서 개별 추정치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Higgins & Whitehead,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다변량 메타분석을 수행하여 효과크기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학교급(연구대상) 및 학업지연 검사도구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메타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차원적 완벽주의

완벽주의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황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Hollender, 1965). Pacht(1984)는 완벽주의를 일종의 정신 병리적 증상으로 보고, 완벽주의자를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강박적으로 끊임없이 애쓰며, 남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욕구로 인해 쉽게 자기 패배감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Horney(1950)는 완벽주의자들이 완벽주의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를 가지게 되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통스러워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인 속성을 가진 단일차원의 구성개념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Burns, 1980; Ellis, 1958; Hamachek, 1978; Hollender, 1965).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이 스스로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높은 수행수준을 보이기도 하면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적응적 측면의 완벽주의도 고려되었다(Hewitt & Dyck, 1986). Hewitt와 Dyck(1986)은 완벽주의를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려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다.

먼저,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여섯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개발하였다. 하위 차원 요소로는 개인적 기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조직화,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난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기준’은 자기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며, ‘실수에 대한 염려’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수행에 대한 의심’은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경향이며, ‘조직화’는 정확성과 질서, 정리 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대’는 부모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지각이며, 마지막으로 ‘부모의 비난’은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며, 부모가 기대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부모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Hewitt와 Flett(1991)는 완벽주의가 어느 방향에서 기인하는가에 따라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제안하고, 완벽주의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자신에게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 및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와 엄격한 자기 평가 등이 포함되는 자가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중요한 타인에게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하고, 타인의 수행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중요한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준과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보며, 타인이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믿음이나 지각이 수반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측정도구(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MPS)를 개발하였다.

이후 Slaney, Ashby와 Trippi(1995)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완벽주의 측정도구(Almost Perfect Scale: APS)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부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완벽주의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기준/질서, 관계의 어려움, 꾸물거림, 불안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요인들이 완벽주의에 특정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Enns & Cox, 2002; Johnson & Slaney, 1996). 따라서 이들은 APS-R 이라는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긍정적인 완벽주의 차원으로 높은 기준과 질서, 부정적인 완벽주의 차원으로 불일치를 포함하여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Slaney et al., 2001). 한편, Dunkley 외(2000)는 FMPS와 HMPS의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고, 이들 측정도구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완벽주의를 적응적 양상의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양상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도 FMPS와 HMPS 척도를 활용하여 완벽주의 차원을 요인분석한 후 이차원으로 재개념화 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이현진, 주인석, 김명찬, 2019).

대표적으로 세 가지 측정도구(FMPS, HMPS, APS-R)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HMPS는 국내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관련 연구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전경남, 이정민,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종합하기 위해, 완벽주의를 HMPS 측정도구에서 분류한 세 가지 하위차원(자가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으로 구분하여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 2. 학업지연행동

학습자가 흔히 나타내는 문제행동 중에는 학습자가 학업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행동이 연구되고 있다(Solomon & Rothblum, 1984). Lay(1986)는 지연행동을 완성해야 할 과제를 미루는 비합리적인 경향성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업지연행동은 학습상황에서 과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과도하게 미루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을 지연시킴으로써 학업수행의 질 저하, 낮은 학업성취도,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 등을 초래한다(Schouwenburg et al., 2004; Solomon & Rothblum, 1984; Steel & Klingsieck, 2016).

Aitken(1982)은 지연행동을 학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회피하는 행동적 측면보다는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성격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만성적 지연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한편, Solomon과 Rothblum(1984)은 지연행동에 대해 마감시간까지 과제 수행을 미루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행동, 인지, 정서적 요인의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단순한 시간 관리나 습관과 같은 행동적 차원을 넘어서서 과제 수행에 대한 인지와 수행능력 간의 불일치성, 미루면서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불편함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교육학 및 심리학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업지연행동이 성실성과 충동성(Dewitt & Schouwenburg, 2002; Lay, Kovacs & Danto, 1998; Steel, 2007), 실패에 대한 두려움(Onwuegbuzie, 2000; Schouwenburg, 1992; Solomon & Rothblum, 1984), 낮은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Klassen et al., 2010; Tuckman, 1991; Van Eerde, 2003), 완벽주의(Martin, Flett, Hewitt, Krames & Szanto, 1996; Onwuegbuzie, 2000) 등이 학업지연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해 왔다.

학업지연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itken(1982)에 의해 개발된 API(the 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가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Solomon과 Rothblum(1984)이 제작한 PASS(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Students)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전경남, 이정민, 2018). 먼저, API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로 학업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얼마나 미루는지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PASS도 대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측정 도구이긴 하나 API와 다르게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여러 학업 영역에서 지연행동의 빈도와 지연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묻고 있으며, 두 번째 영역은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측정도구는 완전히 동일한 구성개념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이수민, 양난미, 2011), 어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연구했는가에 따라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경령과 서은희(2017)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API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가 부적으로 나타났으나, PASS를 사용한 논문의 경우 이들 간의 관계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다변량 메타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본 연구에서도 측정도구의 사용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3.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

다차원 완벽주의의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각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의 영향 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그 관계를 탐색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조이슬, 강영신, 2015; Hewitt & Flett, 1991). 이에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Hewitt와 Flett(1991)가 제안한 세 가지 하위차원(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정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이수민, 양난미, 2011; 한영숙, 2011; Busko, 1998; Frost et al., 1990; Saddler & Buley, 1999).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므로 학업적 지연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이현주, 손원숙, 201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Flett et al., 1992; Saddler & Sacks, 1993),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한편,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다(한영숙, 2011; Martin et al., 1993; Saddler & Buley, 1999; Saddler & Sacks, 1993). 의미있는 타인들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그들이 완벽해지도록 하는데 기대를 하므로 자신의 학업을 지연시키는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타인이 완벽해지도록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자신의 학업지연 행동을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Flett et al., 1992). 서은희(2006) 연구에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을 향한 높은 기대가 자신의 행동 또한 엄격하게 평가하려 하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학업을 잘 마무리지 않으려고 하는 통제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로 다른 두 하위 차원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보다는 좀 더 분명하고 일치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이수민, 양난미, 2011; 추상엽, 임성문, 2009; Flett et al., 1992; Martin et al., 1996; Onwuegbuzie, 2000; Saddler & Buley, 1999; Saddler & Sacks, 199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이 중요한 타인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학업적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학업적 행동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차원 완벽주의에서의 각 하위차원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정적 관계로 비교적 분명하지만 연구들마다 그 관련성의 정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백지은과 이승연(2016)의 연구에서는 회귀계수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보람과 양난미(2012)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직접적인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다른 관련변인(수행회피 성취목표, 자기구실 만들기)을 매개하여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연구들마다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는 것은 연구참여자 수, 서로 다른 측정도구의 사용, 연구참여자의 연령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다 분명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 II. 연구방법

### 1. 문헌검색 및 연구대상 선정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에서 출판된 학술지 논문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수집하였다.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완벽주의’, ‘학업지연’, ‘학업꾸물거림’, ‘Perfectionism’, ‘Procrastination’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될 최종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학업지연행동은 청소년기에 빈번히 발생하며 지연행동 양상은 성인기로 갈수록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지연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연구대상을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로 한정하였다. 둘째, 동일한 자료로 연구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으로 간주하고, 학술지 논문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효과크기를 구하기 위해 완벽주의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연구만 포함하였다. 위 기준을 충족하는 44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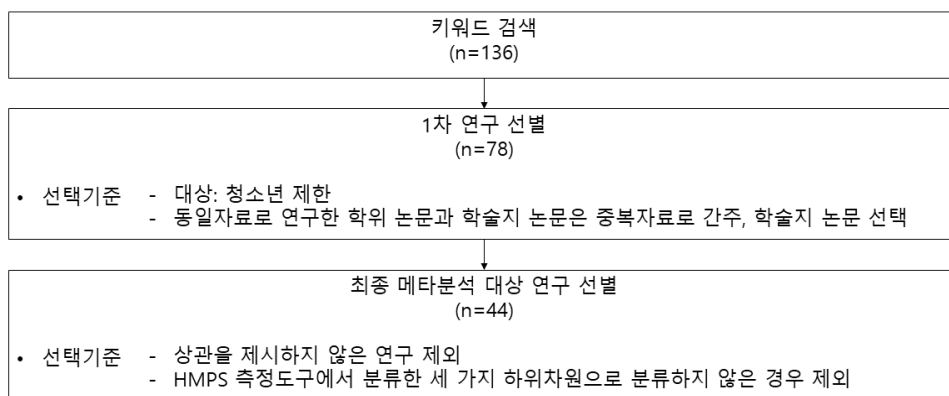


그림 1. 메타분석 대상 논문 수집 과정

## 2. 데이터 입력

1차 데이터 입력은 3명의 연구자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2차로 교차검증을 하였다. 입력한 정보는 효과크기 계산을 위한 통계치(상관계수, 다차원 완벽주의 및 학업지연 행동 검사의 신뢰도), 출판유형(학위논문, 학술지), 출판연도, 표본 수, 연구대상(초중고청소년, 대학생),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i) Aitken(1982)의 학업지연행동 검사(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 박재우(1998) 변안, ii) 기타 검사: Solomon과 Rothblum(1984)의 학생용 지연행동평가 검사(Procrastination Assessment Scale-Student: PASS), 윤숙경(1996) 변안 등 이다. 구체적인 코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표본 수와 출판연도를 각각 100으로 나누어 재척도화(re-scaling) 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자료 코딩

| 연구특성      | 코딩 값                       |
|-----------|----------------------------|
| 출판유형      | 1=학위논문, 0=학술지(참조변수)        |
| 출판연도      | 2001-2018                  |
| 표본 수      | 116-911                    |
| 연구대상      | 1=초중고청소년, 0=대학생(참조변수)      |
| 학업지연행동 검사 | 1=Aitken 검사, 0=기타 검사(참조변수) |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다차원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완벽주의처럼 다차원 요인구조를 가지는 경우, 각 연구에서 여러 개의 효과크기가 보고되며, 효과크기들이 서로 공분산을 나타내므로 이를 반영한 다변량 모형이 고려되어야 한다(이현정, 손수경, 장유나, 홍세희, 2018; Cheung, 2013). 따라서 다차원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세 가지 효과크기를 종합하기 위해 다변량 메타분석(multivariate meta-analysis)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변량 메타분석에서 널리 적용되는 2단계를 접근법을 따랐다(Kalaian & Raudenbush, 1996).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내(within studies) 수준에서, 각 연구로부터 얻은 변수 간 상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각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를 활용해 감소된 상관관계를 교정함으로써 효과크기를 얻을 수 있다(Hunter & Schmidt, 1990).

$$ES_{ij} = \frac{r_{ij}}{\sqrt{r_{ii}} \sqrt{r_{jj}}}$$

$r_{ij}$  = 연구에 보고된 상관관계

$r_{ii}, r_{jj}$  = 각 변수의 신뢰도

각 효과크기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Borenstein et al., 2009, p. 343).

$$V_r = \frac{v(r)}{a^2}$$

$$v(r) = \frac{(1 - (r_{ij})^2)^2}{n - 1}, \quad a = \frac{r_{ij}}{ES}$$

마지막으로 두 효과크기 간의 공분산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되며(Becker, 2000; Olkin & Siotani, 1976, p. 238),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상관계수( $\rho$ ) 대신 교정된 상관계수 즉, 위에서 산출된 효과크기를 활용하였다(Aloe, Amo & Shanahan, 2014).

$$\begin{aligned} cov(r_{ij}, r_{kl}) = & [0.5\rho_{ij}\rho_{kl}(\rho_{ik}^2 + \rho_{il}^2 + \rho_{jk}^2 + \rho_{jl}^2) + \rho_{ik}\rho_{jl} + \rho_{il}\rho_{jk} \\ & - (\rho_{ij}\rho_{ik}\rho_{il} + \rho_{ij}\rho_{jk}\rho_{jl} + \rho_{ik}\rho_{jk}\rho_{kl} + \rho_{il}\rho_{jl}\rho_{kl})]/n \end{aligned}$$

두 번째 단계는 연구 간(between studies) 수준에서, 무선효과(random-effect) 분석을 통해 연구 간의 이질성을 확인하고, 혼합효과(mixed-effect) 분석에서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는 조절변인(moderator)의 효과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효과크기가 큰 연구나 사례수가 큰 연구의 효과크기가 유의하여 출판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연구는 결측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이라고 한다(홍세희, 노연경, 정송, 2016). 출판된 연구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출판 편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각 연구의 효과크기(x축)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y축)를 시각화한 funnel plot을 통해 전체 효과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둘째, egger 검정으로 비대칭성(asymmetry)을 검증하였다. 통계량이 유의하지 않으면, funnel plot이 대칭이라는 의미이고 출판 편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분석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에 대한 비대칭성( $z = -0.556, p = 0.58$ ),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에 대한 비대칭성( $z = -0.513, p = 0.6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출판 편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에 대한 비대칭성( $z = -4.182, p = 0.00$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출판 편향을 고려하여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funnel plot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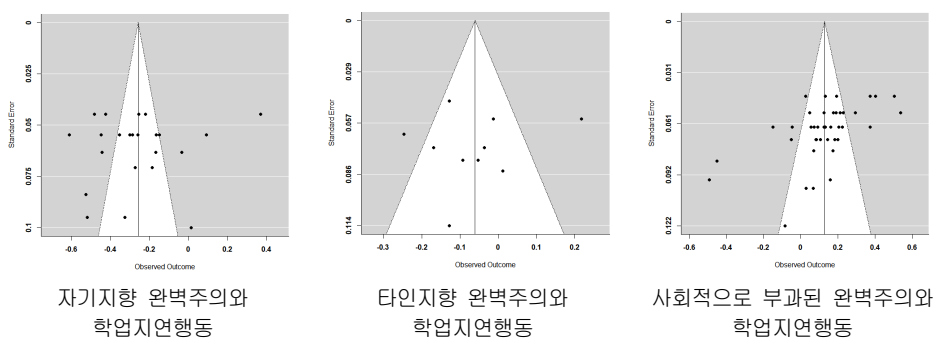


그림 2. funnel plot

본 연구는 효과크기간의 공분산을 고려한 다변량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metafor R Package(Viechtbauer, 2010)를 활용하였으며, ML(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metafor를 활용한 다변량 분석에서는 대상연구가 반드시 모든 결과변수(outcome)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로 의존적인 세 개의 상관에 대한 다변량 메타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하나의 상관만 보고된 연구도 분석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Viechtbauer, 2018).

#### IV. 분석 결과

본 연구를 위해 대상논문 44편에 보고된 통계치를 바탕으로 다차원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각 효과크기와 분산 및 공분산을 계산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연구의 효과크기, 분산 및 공분산

| 저자            | 연도   | 효과크기  |        |       | 분산   |      |      | 공분산    |        |        |
|---------------|------|-------|--------|-------|------|------|------|--------|--------|--------|
|               |      | SeP   | OP     | SoP   | SeP  | OP   | SoP  | SeP&OP | SeP&OP | OP&SoP |
| 강명진           | 2017 | -     | -      | .073  | -    | -    | .004 | -      | -      | -      |
|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 2011 | -.300 | -      | .133  | .003 | -    | .004 | -      | .001   | -      |
| 고은지           | 2017 | -     | -      | .193  | -    | -    | .002 | -      | -      | -      |
| 구미영           | 2015 | -.610 | -.052  | -.051 | .003 | .006 | .005 | .000   | .001   | .000   |
| 김나경, 한기백      | 2019 | -     | -      | .190  | -    | -    | .003 | -      | -      | -      |
| 김남진, 최웅용      | 2017 | -.424 | -.0247 | -.047 | .002 | .004 | .004 | .001   | .001   | .001   |
| 김단비           | 2018 | -     | -      | .082  | -    | -    | .005 | -      | -      | -      |
| 김민정           | 2012 | -     | -      | .107  | -    | -    | .005 | -      | -      | -      |
| 김슬기, 박은영      | 2018 | -     | -      | .124  | -    | -    | .003 | -      | -      | -      |
| 김연실           | 2000 | -.149 | -.013  | .125  | .003 | .003 | .003 | .000   | .001   | .000   |
| 김현이           | 2017 | -     | -      | .175  | -    | -    | .003 | -      | -      | -      |
| 노아름           | 2010 | .013  | -      | .068  | .010 | -    | .010 | -      | .003   | -      |
| 노영화           | 2018 | -     | -      | .538  | -    | -    | .003 | -      | -      | -      |
| 박보람, 양난미      | 2012 | -     | -      | .029  | -    | -    | .010 | -      | -      | -      |
| 박지은           | 2019 | -     | -      | .212  | -    | -    | .003 | -      | -      | -      |

| 저자            | 연도   | 효과크기  |       |       | 분산   |      |      | 공분산    |        |        |
|---------------|------|-------|-------|-------|------|------|------|--------|--------|--------|
|               |      | SeP   | OP    | SoP   | SeP  | OP   | SoP  | SeP&OP | SeP&OP | OP&SoP |
| 배소라           | 2017 | -.254 | .218  | .048  | .002 | .003 | .003 | .001   | .001   | .001   |
| 백경희           | 2015 | -.288 | -     | .126  | .003 | -    | .004 | -      | .001   | -      |
| 백지은, 이승연      | 2016 | -     | -     | .403  | -    | -    | .002 | -      | -      | -      |
| 서은희           | 2006 | -.221 | -.128 | .025  | .002 | .002 | .002 | .001   | .001   | .001   |
| 손명숙           | 2018 | -.354 | -     | .054  | .003 | -    | .004 | -      | .001   | -      |
| 송윤희           | 2012 | -.527 | -.128 | -.086 | .007 | .013 | .015 | .004   | .004   | .006   |
| 양민정           | 2017 | -     | -     | .160  | -    | -    | .009 | -      | -      | -      |
| 오지애           | 2016 | -.034 | -.036 | .184  | .004 | .005 | .005 | .001   | .001   | .002   |
| 유진희           | 2018 | -     | -     | .374  | -    | -    | .004 | -      | -      | -      |
| 윤경미, 여태철      | 2013 | -.260 | -     | .204  | .003 | -    | .004 | -      | .002   | -      |
| 이미라, 오경자      | 2009 | -.166 | -     | -     | .003 | -    | -    | -      | -      | -      |
| 이성민, 김정규      | 2017 | -     | -     | .295  | -    | -    | .003 | -      | -      | -      |
| 이수민, 양난미      | 2011 | -.447 | -     | .084  | .003 | -    | .005 | -      | .001   | -      |
| 이수정           | 2011 | -.326 | -     | -.453 | .009 | -    | .007 | -      | .005   | -      |
| 이은정           | 2002 | -.274 | -.092 | .069  | .005 | .006 | .006 | .002   | .002   | .002   |
| 이준엽           | 2013 | -.444 | -.169 | .173  | .004 | .005 | .006 | .001   | .002   | .001   |
| 이혜연           | 2009 | -     | -     | .224  | -    | -    | .004 | -      | -      | -      |
| 임선영           | 2010 | -     | -     | .374  | -    | -    | .002 | -      | -      | -      |
| 임소연           | 2013 | -.168 | -     | .071  | .004 | -    | .004 | -      | .001   | -      |
| 장영아, 김정문      | 2014 | -     | -     | .161  | -    | -    | .004 | -      | -      | -      |
| 장윤희           | 2016 | -.483 | -     | -.150 | .002 | -    | .004 | -      | .001   | -      |
| 정금주           | 2014 | .091  | -     | .228  | .003 | -    | .003 | -      | .002   | -      |
| 정미란           | 2017 | -     | -     | .145  | -    | -    | .005 | -      | -      | -      |
| 정선아           | 2018 | -     | -     | .091  | -    | -    | .004 | -      | -      | -      |
| 조이슬, 강영신      | 2015 | -     | -     | .131  | -    | -    | .004 | -      | -      | -      |
| 최은정           | 2011 | .370  | -     | .504  | .002 | -    | .002 | -      | .001   | -      |
| 추상엽, 임성문      | 2009 | -     | -     | .133  | -    | -    | .002 | -      | -      | -      |
| 홍경희, 박지현, 김세진 | 2016 | -.520 | -     | -.492 | .009 | -    | .009 | -      | .002   | -      |
| 홍은순           | 2011 | -.185 | .012  | .200  | .005 | .007 | .005 | .001   | .001   | .002   |

주 1. SeP: self-oriented perfectionism(자기지향 완벽주의), OP: other-oriented perfectionism(타인지향 완벽주의), SoP: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주 2. 논문에 상관계수가 제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는 수치에 dash(-) 표기함

다차원 완벽주의 하위요소별로 세 가지 상관관계를 모두 제시한 연구도 있지만(예: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일부 상관계수만 보고한 연구의 경우에는 계산 가능한 값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우선,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보고한 연구는 총 23편이며 효과크기는 -.610에서 .370까지 분포해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연구는 10편으로, 효과크기는 -.247에서 .218까지 분포해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계수가 보고된 연구는 43편으로, 효과크기는 -.492에서 .538까지 분포해있다. 이를 세 개의 효과크기 별로 종합한 forest plot을 그림 3~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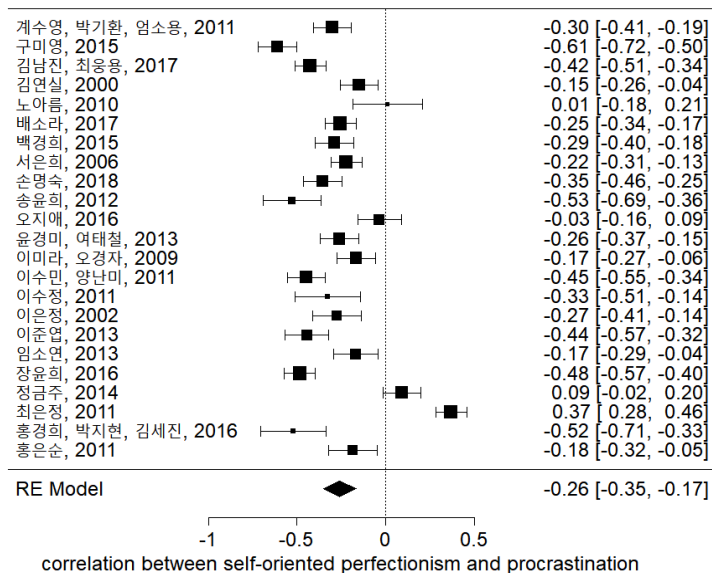


그림 3.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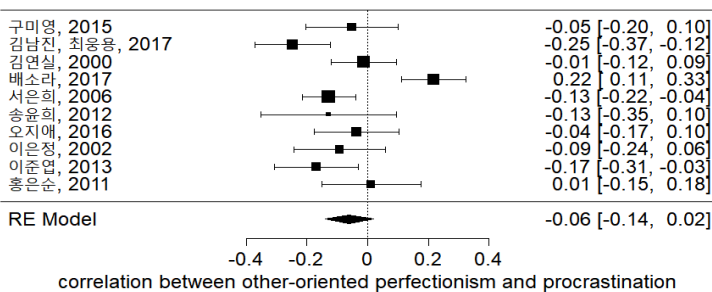


그림 4.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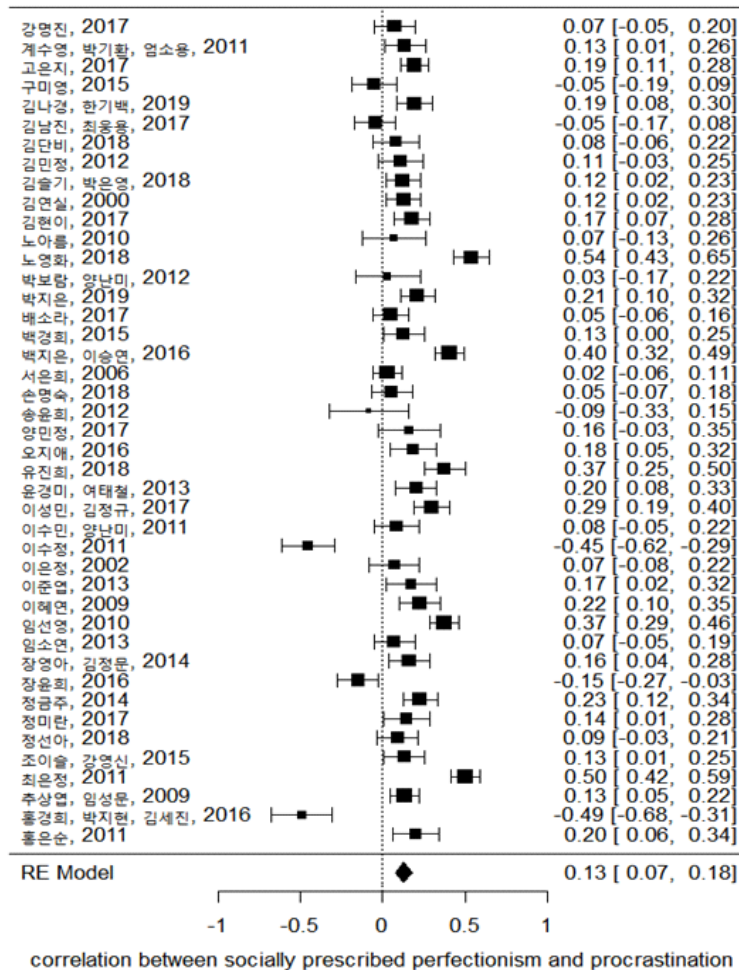


그림 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상관관계

다차원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를 대상으로 무선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총 76개의 효과크기에 대한 이질성 검증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Q(73)=734.765, p<.01$ ) 각 하위차원별 이질성 검증결과도 유의하였다. 세부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0.2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타인지향 완벽주의 학업지연행동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0.032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  
동 간 평균 효과크기는 0.1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3

## 무선효과 추정 결과

| 완벽주의<br>하위차원 | 연구 수<br>(k) | 효과<br>크기 | 95%<br>신뢰구간  | 분산<br>( $\tau^2$ ) | 상관( $\rho$ ) |      |    | 이질성 검증<br>(Q(df)) |
|--------------|-------------|----------|--------------|--------------------|--------------|------|----|-------------------|
|              |             |          |              |                    | 자기           | 타인   | 사회 |                   |
| 자기지향         | 23          | -.206*** | -.285, -.127 | .042               | 1            |      |    | 390.768(22)***    |
| 타인지향         | 10          | -.032    | -.111, .046  | .014               | .500         | 1    |    | 41.264(9)***      |
| 사회적 부과       | 43          | .127***  | .073, .182   | .029               | .675         | .360 | 1  | 360.364(42)***    |

\*  $p < .05$ , \*\*  $p < .01$ , \*\*\*  $p < .001$

완벽주의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에 대한 연구간 분산은 자기지향 완  
벽주의 0.042, 타인지향 완벽주의 0.014,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0.029로 나타났  
다. 각 효과크기 간의 상관은 정적상관으로 .3에서 .7사이에서 분포하였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 및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및 학업지연행  
동 간 효과크기의 상관이 가장 강한 상관(.675)을 보였다.

연구 간에 나타나는 이질성을 설명하는 연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조절변인  
으로 투입하여 혼합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연구특성으로는 표본 수, 출판연도, 출판  
유형, 연구대상, 학업지연행동 척도를 고려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본 수  
및 연구대상, 출판유형,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가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본 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 사  
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 즉, 두 가지 효과크기를 유의  
하게 조절하였다(.052,  $p < .05$ ; .056,  $p < .01$ ).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경우, 표본 수가  
증가할수록 부적인 효과크기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으로 부  
과된 완벽주의의 경우, 표본 수가 증가할수록 정적인 효과크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출판유형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 타인  
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를 유의하게 조절하였으며(-.182,  $p < .05$ ;  
-.183,  $p < .05$ ), 학위논문보다 학술지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0,  $p < .05$ ). 연구대상이 대학생보다 아동·청소년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지연행동 척도는 자가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288,  $p < .001$ ). Aitken의 척도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연구특성의 조절효과 검증

| 효과크기             | 조절변수         | 추정치        | 표준오차   |
|------------------|--------------|------------|--------|
| 자가지향 -<br>학업지연   | (절편)         | -14.887    | 16.932 |
|                  | 표본 수         | 0.052 *    | 0.021  |
|                  | 출판연도         | 0.732      | 0.843  |
|                  | 출판유형         | -0.182 *   | 0.072  |
|                  | 연구대상         | -0.066     | 0.079  |
|                  |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 | -0.288 *** | 0.075  |
| 타인지향 -<br>학업지연   | (절편)         | 0.569      | 13.287 |
|                  | 표본 수         | 0.016      | 0.017  |
|                  | 출판연도         | -0.032     | 0.662  |
|                  | 출판유형         | -0.183 *   | 0.074  |
|                  | 연구대상         | 0.180 *    | 0.079  |
|                  |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 | -0.052     | 0.080  |
| 사회적 부과 -<br>학업지연 | (절편)         | -22.914    | 13.255 |
|                  | 표본 수         | 0.056 **   | 0.018  |
|                  | 출판연도         | 1.141      | 0.659  |
|                  | 출판유형         | -0.087     | 0.056  |
|                  | 연구대상         | -0.062     | 0.059  |
|                  |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 | -0.127     | 0.071  |

주. 출판유형(1=학위논문, 0=학술지), 연구대상(1=아동·청소년, 0=대학생), 학업지연행동 검사(1=Aitken 검사, 0=기타 검사)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차원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를 종합함에 있어 완벽주의의 하위요소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다변량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특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완벽주의 하위차원과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를 무선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는 부적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효과크기는 부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메타연구인 김경령과 서은희(201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 간 의존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조정된 평균효과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스스로 높게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준이라고 인지되는 경우 학업지연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을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어떤 성향의 완벽주의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거나 조절하는 데 있어 교육학 및 상담학적으로 다른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효과크기의 이질성 검증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변인으로 이들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본 수, 출판유형, 연구대상,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가 효과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는 표본 수가 커질수록 부적인 효과크기가 완화되었고, 출판유형이 학술지인 경우 부적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출판된 연구에 보고된 효과크기일수록 보다 분명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Aitken의 검사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가 강화되었는데, 이는 Aitken의 검사를 사용한 경우 Aitken 이외의 검사(예, PASS)를 사용한 연구보다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전경남과 이정민의 연구(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검사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가 다르게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Aitken 척도의 경우 학업지연을 행동특성 중심으로 물어보는 반면, 기타검사로 대표되는 PASS의 경우 지연행동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여부도 함께 묻는다(김경령, 서은희, 2017). 따라서 지연행동에 초점을 맞

준 Aitken 척도로 측정한 연구일수록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의 부적 관계가 크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는 출판유형이 학술지인 경우 부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고, 연구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 부적인 효과크기가 완화되었다. 이는 출판된 논문일수록 보고된 효과크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에 보였던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부적관계가 대학생이 되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고 청소년보다 대학생의 경우 타인에게 기대하는 완벽함 클수록 자신의 학업지연을 낮추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메타연구(전경남, 이정민, 2018)에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 간 이질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조절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간 평균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질성 검증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완벽주의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고 다변량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한 모형에서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효과크기에 대한 조절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기존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는 표본 수가 커질수록 정적인 효과크기가 강화되었다. 기존의 메타연구에서 표본 수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어 직접적인 결과비교는 힘들지만, 연구대상의 수가 많아 대표성이 큰 연구일수록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정적관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하위차원을 각각 나누어 효과크기를 종합한 김정령과 서은희(2017)의 연구와 다르게, 하위차원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효과크기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의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고 소수점 수준에서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 검사 종류를 기준으로 연구를 분리하여 각각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특성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전체 효과크기를 구한 후, 연구간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특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므로 기존의 메타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방법론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다차원 완벽주의가 하위요인 별로 학업지연행동과 차별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교육 및 상담의 측면에서 함의를 지닌다. 완벽주의 하위차원의 서로 다른 개념을 이해하고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일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에 따라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하위차원 수준에서 완벽주의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업지연 행동을 미리 예측한다면, 교실 혹은 수업장면에서 학업지연을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지연행동의 검사종류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연구자의 목적에 맞는 학업지연행동 평가 도구를 선택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인지향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초중고 청소년보다 대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났으므로, 평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대학생의 학업문제에 대한 상담과 교육적 개입을 모색해볼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초중고 청소년 보다 학업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지연행동이 고착화된다면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 있다면 일정에 맞게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습코칭을 제안해볼 수 있다. 또한,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상담을 통해 심리적·행동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해감으로써 성공적으로 학습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일부만 다룬 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하위요인 간 연구 수를 균형있게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차원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메타분석을 수행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완벽주의를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보는 Hewitt의 제안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나, 평가염려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완벽주의 전체를 종합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국내에서 출판된 연구만으로 한정하였지만, 국외 연구까지 포함한다면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차원 완벽주의의 하위차원 간 상호의존성으로 고려하여 다변량 메타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종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두 변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출판유형, 연구대상 및 학업지연 검사도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참고문헌

-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1(2), 95-111.
- 김경령, 서은희 (2017).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Hewitt 과 Flett 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5(4), 65-89.
-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187-221.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보람, 양난미 (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41-561.
- 백지은, 이승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99-122. doi:10.16983/kjsp.2016.13.1.99
- 서은희, (2006).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효과. **미래교육연구**, 19(2), 24-41.
- 서은희, 김은경 (2012). 대학생의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몰입경험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26(2), 377-390.
- 손창숙, 이주미, 이명숙 (2015).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습동기 및 정서 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사교육연구**, 54(1), 74-85. doi:10.15812/ter.54.1.201503.74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학업지연 행동의 기질적, 환경적, 동기적 선행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0(3), 635-669. doi:10.17286/KJEP.2016.30.3.07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현정, 손수경, 장유나, 홍세희 (2018). SEM 기반 메타분석의 이론 및 적용. **한국**

- 심리학회지: 일반**, 37(1), 127-152.
- 이현주, 손원숙 (2013). 고등학생의 자가지향과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 조절학습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19-239. doi:10.16983/kjsp.2013.10.1.219
- 이현진, 주인석, 김명찬 (2019). 완벽주의 연구동향 및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 분석: 상담학 분야 주요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3), 343-368. doi: 10.15703/kjc.20.3.201906.343
- 임성문, 강미정 (2006).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사회과학연구**, 23(1), 119-136.
- 전경남, 이정민 (2018). 완벽주의와 학업지연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8(4), 523-552. doi:10.22251/jlcci.2018.18.4.523
- 조이슬, 강영신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6(4), 359-375. doi:10.15703/kjc.16.4.201508.359
- 추상엽, 임성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수행 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와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467-490.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77-299.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 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doi:10.15703/kjc.12.3.201106.861
- 홍세희, 노언경, 정송 (2016).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보호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조사연구**, 17(1), 137-166. doi:10.20997/SR.17.1.7
- Aiken, M. E.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Alden, L. E., Bieling, P. J., & Wallace, S. T. (1994). Perfectionism in an interpersonal context: A self-regulation analysis of dysphoria and social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4), 297-316. doi:10.1007/bf02357507
- Aloe, A. M., Amo, L. C., & Shanahan, M. E. (2014). Classroom management



- self-efficacy and burnout: A multivariate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6(1), 101-126. doi:10.1007/s10648-013-9244-0
- Becker, B. J. (1992). Using results from replicated studies to estimate linear model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17(4), 341-362. doi:10.2307/1165128
- Becker, B. J. (2000). Multivariate meta-analysis. In H. E. A. Tinsley, & S. D. Brown (Eds.), *Handbook of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and mathematical modeling* (pp. 499-525). San Diego: Academic. doi:10.1016/b978-012691360-6/50018-5
- Becker, B. J. (2009). Model-based meta-analysis. In H. Cooper, L. V. Hedges, & J. C. Valentine (Eds.), *The handbook of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2nd ed., pp. 377-395).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rrington, A., & Cox, D. R. (2003). Generalized least squares for the synthesis of correlated information. *Biostatistics*, 4(3), 423-431. doi:10.1093/biostatistics/4.3.423
- Blatt, S., Quinlan, D. M., Pilkonis, P., & Shea, M. T. (1995). Impact of perfectionism and need for approval on the brief treatment of depression: The NIM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revisite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1), 125-132. doi:10.1037//0022-006x.63.1.125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West Sussex: Wiley. doi:10.1002/9780470743386
-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and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Busko, D. A. (1998). Causes and consequence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a structural equation model. M. A. University of Guelph, Canada.
- Cheung, M. W. L. (2013). Multivariate meta-analysis as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3), 429-454.

doi:10.1080/10705511.2013.797827

- Cheung, M. W., & Chan, W. (2009). A two-stage approach to synthesizing covariance matrices in meta-analytic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6(1), 28-53. doi:10.1080/10705510802561295
- Dewitte, S., & Schouwenburg, H. (2002). Procrastination, temptations, and incentives: The struggl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procrastinators and the punctua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6), 469-489. doi: 10.1002/per.461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doi:10.1037//0022-0167.47.4.437
- Ellis, A. (1958). Rational Psychotherap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59(1), 35-49. doi:10.1080/00221309.1958.9710170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Signet Books.
- Enns, M. W., & Cox, B. J. (2002). The nature and assessment of perfectionism: A critic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33-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458-002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1).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458-001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2), 85-94. doi:10.2224/sbp.1992.20.2.85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doi: 10.1007/ bf01172967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 27-33.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1), 137-142. doi:10.1007/ bf01173389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doi:10.1037//0022-3514.60.3.456
- Higgins, J. P., & Whitehead, A. (1996). Borrowing strength from external trials in a meta-analysis. *Statistics in medicine*, 15(24), 2733-2749. doi:10.1002/(sici) 1097-0258(19961230)15:24<2733::aid-sim562>3.0.co;2-0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2), 94-103. doi:10.1016/s0010-440x(65)80016-5
- Horney, K. (1950). *The Collected Works of Karen Horney: Self analysis*. Neurosis and human growth (Vol. 2). WW Norton.
- Hunter, J. E., & Schmidt, F. L. (1990). *Methods of meta-analysis: correcting error and bias in research findings*. Newbury Park: Sage.
- Johnson, D. P., & Slaney, R. B. (1996).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a study of perfectionistic clien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1), 29-41.
- Kalaian, H. A., & Raudenbush, S. W. (1996). A multivariate mixed linear model for meta-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3), 227-235. doi:10.1037/1082-989x.1.3.227
- Klassen, R. M., Ang, R. P., Chong, W. H., Krawchuk, L. L., Huan, V. S., Wong, I. Y., & Yeo, L. S. (2010). Academic procrastination in two

- settings: Motivation correlates, behavioral patterns, and negative impact of procrastination in Canada and Singapore. *Applied Psychology*, 59(3), 361-379. doi:10.1111/j.1464-0597.2009.00394.x
- Klingsieck, K. B. (2013). Procrastination: When good things don't come to those who wait. *European Psychologist*, 18(1), 24-34. doi:10.1027/1016-9040/a000138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4), 474-495. doi:10.1016/0092-6566(86)90127-3
- Lay, C. H., Kovacs, A., & Danto, D. (1998). The relation of trait procrastination to the big-five factor conscientiousness: An assessment with primary-junior school children based on self-report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2), 187-193. doi:10.1016/s0191-8869(98)00005-1
- Martin, T. R., Flett, G. L., Hewitt, P. L., Krames, L., & Szanto, G. (1996). Personality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health symptoms: A test of a self-regul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2), 264-277. doi:10.1006/jrpe.1996.0017
- Martin, T., Flett, G., & Hewitt, P. L. (1993). Perfectionism, self-expectancies, and procrastination. Unpublished manuscript.
- O'Connor, D. B., O'Connor, R. C., & Marshall, R. (2007).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Evidence of the mediating effects of rum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Published for the European Associ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y*, 21(4), 429-452. doi:10.1002/per.616
- Olkin, I., & Siotani, M. (1976). Asymptotic distribution of functions of a correlation matrix. In S. Ikeda (Ed.), *Essays in probability and statistics* (pp. 235-251). Tokyo: Shinko Tsusho.
- Onwuegbuzie, A. J. (2000). Academic procrastinators and perfectionistic tendencies amo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5(5), 103-109.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390. doi:10.1037//0003-066x.39.4.386

- Raudenbush, S. W., Becker, B. J., & Kalaian, H. (1988). Modeling multivariate effect sizes. *Psychological Bulletin*, 103(1), 111-120. doi:10.1037//0033-2909.103.1.111
- Riley, R. D., Abrams, K. R., Sutton, A. J., Lambert, P. C., & Thompson, J. R. (2007). Bivariate random-effects meta-analysis and the estimation of between-study correlation.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7(1), 3. doi:10.1186/1471-2288-7-3
-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2), 686-688. doi:10.2466/pr0.1999.84.2.686
- Saddler, C. D., & Sacks, L. A. (1993).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3), 863-871. doi:10.2466/pr0.1993.73.3.863
- Schouwenburg, H. C. (1992). Procrastinators and fear of failure: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3), 225-236. doi:10.1002/per.2410060305
- Schouwenburg, H. C., Lay, C. H., Pychyl, T. A., & Ferrari, J. R. (2004).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0808-000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7), 773-791. doi:10.1016/s0005-7967(01)00059-6
- Slaney, R. B., Ashby, J. S., & Trippi, J. (1995).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3), 279-297. doi:10.1177/106907279500300303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3), 130-145. doi:10.1080/07481756.2002.12069030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doi:10.1037//0022-0167.31.4.503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doi:10.1037/0033-2909.133.1.65
- Steel, P., & Klingsieck, K. B. (2016). Academic procrastination: Psychological antecedents revisited. *Australian Psychologist*, 51(1), 36-46. doi:10.1111/ap.12173
- Strunk, K. K., Cho, Y., Steele, M. R., & Bridges, S. L.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2 \times 2$  model of time-related academic behavior: Procrastination and timely engagement.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35-44. doi: 10.1016/j.lindif.2013.02.007
- Tuckman, B. W. (1991). The development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Procrastination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1(2), 473-480. doi:10.1177/0013164491512022
-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6), 1401-1418. doi: 10.1016/s0191-8869(02)00358-6
- Viechtbauer, W. (2010). Conducting meta-analyses in R with the metafor package.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36(3), 1-48. <http://www.jstatsoft.org/v36/i03/>. doi:10.18637/jss.v036.i03
- Viechtbauer, W. (2018). The metafor package—A Meta-Analysis Package for R. Retrieved from <http://www.metafor-project.org/doku.php/analyses:berkey1998>.

## ABSTRACT

### A multivariate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Lee, Hyunjung\* · Son, Sookyung\*\* · Jang, Yoona\*\*\* · Hong, Sehee\*\*\*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synthesize the effect size of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earch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ese goals, multivariate meta-analysis considering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sub-factors of perfectionism was conduct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self-oriented perfectionism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whil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procrastination. Secondly, the effect sizes across studies were heterogeneou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type of publication, school level, type of academic procrastination scale) moderated the effect siz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duced as samples size increased, but increased when a publication type was a journal and the Aitken procrastination scale was us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creased when a publication type was a journal, but reduced when the school level was adolescen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creased as the sample size increased. These findings and their possible implic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variate meta-analysi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cademic procrastination, effect size, meta regression

투고일: 2019. 9. 16, 심사일: 2019. 11. 1, 심사완료일: 2019. 11. 11

---

\* Hanyang University

\*\* Kookmin University

\*\*\* Korea University